

## 손흥민 “준비 끝났다”... 벤투호 16강 ‘출격’

밤 10시 우루과이와 H조 1차전  
남미 팀 상대 월드컵 첫 승 도전  
첫 경기 승리해야 16강 진출 유리

FIFA WORLD CUP Qat.ar2022  
‘벤투호’의 16강 도전이 시작된다.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4일 밤 10시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치른다.  
〈관련 기사 7·8·18면〉

가나, 포르투갈과 한 조에서 맞붙는 한국의 목표는 16강. 한국은 지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 원정 월드컵 최고 성적인 16강을 작성했다.  
16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단추’가 중요하다. 월드컵에는 ‘1차전 승리=16강’이라는 공식이 있다. 본선 참가국이 24개에서 32개로 늘어난 1998년 프랑스 대회부터 지난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6개 대회를 살펴보면, 조별리그 1차전 96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73개 팀 중 61개국(84%)이 16강행 티켓을 따냈다.

한국도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폴란드와의 1차전에서 2-0 승리로 장식했다. 사상 첫 원정 16강을 이룬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그리스와 1차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 1차전에서 만나는 우루과이는 ‘난적’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이 28위, 우루과이가 14위에 올라있고, 역대 전적에서도 1승 1무 6패로 한국이 열세다.

월드컵 두 번의 만남에서도 모두 패배가 기록됐다. 1990 이탈리아 대회 조별리그 0-1패, 2010 남아공 대회에서는 16강에서 만나 이정용의 골에도 루이스 수아레스(나시오날)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1-2패를 기록했다.

선수 면면을 보더라도 우루과이가 앞선다. 2010 남아공 대회에서 한국을 울렸던 수아레스(A매치 134경기 68골)가 견제하고, 1987년생 동갑내기 에딘손 카바니(발렌시아-133경기 58골)도 한국의 경계 대상이다. 1999년생 다르윈 누녜스(리버풀)도 차세대 골잡이로 눈길을 끈다.

간판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레알 마드리드), 베테랑 센터백 디에고 고딘(벨레사 사르스필드) 등도 벤투호를 긴장시키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다.

한국은 ‘남미 징크스’에도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10번의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남미와 북중미 팀을 상대로 2무 6패를 기록, 한 번도 승전보를 올리지 못했다.

한국의 자존심이자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월드컵을 앞두고 안와골절상을 당한 것도 약재다.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쓴 손흥민이 빠른 회복세 속에 헤더까지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100%의 몸상태는 아니다.

그레고 우렐를 받고 손흥민이 가세하면서 대표



손흥민 등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우루과이전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열린 공식훈련에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팀의 사기가 올랐고, 축구공은 동글다.  
지난 22일 열린 C조 1차전에서 ‘우승후보’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릎을 꿇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의 패널티킥 선제골이 나왔지만 아르헨티나는 후반 연달아 골을 내주면서 1-2 역전패를 당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의 팀이 되면서 아르헨티나에게 월드컵 무대 첫 아시아 국가 상대 패배를 안겨줬다. ‘태극 전사’들에게는 자극제가 된 이번의 경기가 됐다.  
벤투 감독에게 좋은 기억도 있다. 우루과이와의 역대 대표팀 맞대결에서 성적은 1승 1무 6패, 유

일한 1승이 벤투 감독이 이룬 것이다.  
벤투 감독은 2018년 10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황의조(울림피카코스)와 정우영(알사드)의 골로 우루과이를 상대로 2-1 승리를 장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함평서 첫 주민설명회... 광주 군 공항 이전 새 국면

### “군공항 유치 득실 따져보자” 함평 사회단체 공청회 요구 다른 시·군 입장 변화 주목

광주 군 공항 이전 설명회가 함평에서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함평은 그동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은 곳인데다 설명회 성사 배경도 지역사회 자발적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막막했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지 주목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함평 엑스 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에서 이전 사업 필요성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광주시는 지원 사업 관

련 내용을 소개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함평군지부가 주최한다. 함평군은 사회단체 등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여 광주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농업경영인회 함평군 연합회, 이장단도 군 공항 이전의 득실을 따지는 논의 절차를 요구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대구로 편입이 추진되는 경북 군위군처럼 군 공항 이전과 함께 광주로 편입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함평에서 나오고 있다.  
함평이 적극적인 유치 의향을 밝힌다면 무안, 해남, 고흥 등 기존 검토 대상지를 포함한 전남 시·군 중 일부도 유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시점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 7480억원이며, 이 중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4508억원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지원 사업비는 관련법 개정이나 협상 여부에 따라 늘 아닐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존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 개선과 이전 대상지 지원 확대 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업비는 변동 여지도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국방부와 광주시는 전남지역 여러 자치단체와 주민 대 상 설명회를 계획했지만, 해당 지역의 거부로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는 그나마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만 개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자체(함평군) 공식 입장이 담겼거나 찬성·반대를 논하는 게 아닌 공청회 성격의 행사”라면서 “다만 당위성·절차·지원 사업 등 설명을 통한 공론화가 시작된 것만도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 인하 과표상승률 5%로 제한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서민에게 고통을 고려해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한 해의 세금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승제한’과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다.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4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시험 없이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도도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승제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이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돼도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과표상승률이 3%라면, 공시가격이 올해처럼 17.2% 급등해 공시가격이 5억5600만원에서 6억5100만원으로 올라도 과표는 2억5000만원에서 2억5900만원으로 900만원만 늘고, 납부세액은 73만4000원에서 76만7000원으로 3만3000원만 늘어난다.  
과표상승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과표 2억9300만원, 납부세액 89만8000원)보다 과표는 3400만원 줄고, 세액은 13만1000원 감소하는 것이다. 과표상승제한 도입 시 현행 세부담상승률은 폐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연합뉴스

‘회개장터’ 호남 상인 없는 ‘영남장터’ 되나 ▶2면  
라면 업체 팔도, 폐기물 불법 처리 논란 ▶6면  
신 팔도명물 - 포항 구룡포 과메기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The new EQE

모든 순간, 모든 감각을 깨우다.  
This is for all sense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암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암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중산구 광명동대로 565(도산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파워에디션 2배속모드(전기/kWh /Wh): 4.3/ 도심: 4.5, 고속도로: 4.1 |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원 이미지는 실차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